



‘오드리헵번’(1955) © Philippe HalsmanMagnum Photos



‘마릴린먼로’(1959) © Philippe HalsmanMagnum Photos

## 품위 벗고 ‘헵번’ 날다

### 필립 할스만 사진전 ‘점핑 위드 러브’... 5일~9월4일 금호갤러리 ‘드리밍’ ‘러브’ ‘점핑’ ‘달리’ 4개 섹션...케네디·먼로 등 200여점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리처드 닉슨, 마르크 샤갈, 살바도르 달리, 영국왕실 원자공 부부 등 당대 최고의 유명인사들을 ‘뛰게’ 만든 사진작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알프레드 히치콕, 알버트 아인슈타인, 윈스턴 처칠 등 세계적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라이프 매거진 최다기록인 101년의 작품을 표지에 실은 사진작가 필립 할스만(Philippe Halsman·1906~1979)의 작품들이 여름 광주를 찾는다.

‘점핑’ 사진의 원조자 할 수 있는 필립 할스만은 할리우드 톱스타들은 물론 다양한 세계 리더들의 점핑샷을 촬영해 혼란스럽고 지쳐있던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한 인물이다.

필립 할스만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택한 백악관 공식 사진가이자 달리와

함께 초현실주의를 만들어간 위대한 아티스트로 앙리까르띠에 브레송, 리처드 애버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진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필립 할스만은 인물을 촬영하기 전 대상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촬영시간의 몇 배 이상을 할애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필립 할스만의 작품 200여 점과 작품 속 유명인사들의 소품들이 ‘점핑’, ‘드리밍’, ‘러브’, ‘달리’ 등 4개 섹션으로 소개된다.

1섹션(점핑)에서는 세기의 인물들이 날아오른 활나를 담은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두 다리를 벌리고 뛰어오른 오드리 헵번, 정장 차림으로 기꺼이 신발을 벗고 점프한 원자공 부부 등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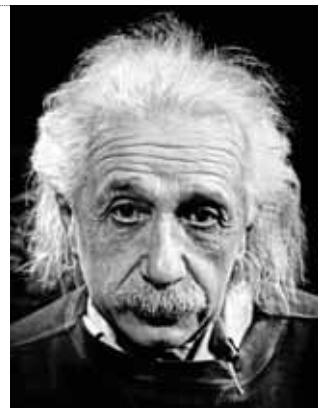
‘드리밍’을 주제로 열리는 2섹션에서는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뒷모습,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했다는 초상사진,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러브 섹션에서는 아름다움과 로망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세 여배우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먼로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오드리 헵번 사후 20주년 컷(데이비드시무어 작 포함)과 마릴린 먼로 사후 50주기 미공개 컷이 서울 전시에서 이어 공개된다.

4섹션에서는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달리와 필립 할스만은 30여 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고양이와 물, 의자가 화면을 날아다니고 달리가 점프하는 순간을 찍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진 50’에 선정된 ‘아토미쿠스’, 달리의 수염을 코믹하면서 역동적으로 그려낸 사진들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국내셀러브리티 존 ‘대한민국도 점핑’에서 김연아 선수 등 국내 유명인사들의 점핑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나도 점핑’에서 자신의 점핑샷을 촬영할 수도 있다.

관람료는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7000원이다. 문의 062-456-44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인슈타인’(1947·위)  
‘존 F. 케네디’(1952·아래)  
© Philippe HalsmanMagnum Photos

### 광주시립합창단, 가요·팝송 무대...8일 문예회관



가수 윤형주



지휘자 임한귀

### 윤형주와 내행 포크송산 증인

오랫동안 상임지휘자가 공석이었던 광주시립합창단이 올 초 임한귀 신임 지휘자 취임 후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호흡하고 있다.

지난 6월 목격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공연했던 광주시립합창단이 이번에는 가요와 팝송을 중심으로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연주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 동행하는 이는 가수 윤형주다. 한국 포크 음악의 산 증인인 윤형주는 이날 ‘어제 내린 비’, ‘비와 나그네’, ‘바보’ 등 히트곡을 선사한다.

합창단은 ‘서시’, ‘붉은 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른 즈음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등 가요와 팝송을 선사하며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삽입곡도 들려준다.

또 윤씨를 비롯해 합창단원과 관객이 함께 부르는 무대도 준비돼 있다. 초대권 이벤트는 오는 4일까지 합창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김미은기자 mekim@

### 전남문화재단, 내일 문화다양성 정책개발 포럼

전남문화예술재단은 3일 오후 2시 순천대 70주년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 등 지역대학 4개 연구기관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남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4월 맺은 업무협약 일환으로 열리며 전남 문화지원 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된 내용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등 지역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한편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모두 5억원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보람기자 boram@

### 광주여성재단, 오늘 광주 젠더포럼 2주년 행사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2일 오후 5시 CMB 광주방송 2층 문화홀에서 광주 젠더포럼 발족 2주년 기념 행사를 갖는다.

‘젠더 포럼, 광주 여성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일자리, 여성 안전, 여성 인권, 여성 건강, 여성 문화,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추첨을 통해 미래 광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10대 여성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며 기념공연도 열린다.

2012년 12월 발족한 광주젠더포럼에는 현재 정치, 법률, 경제, 노동, NGO,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330명의 여성 인제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 062-670-0530.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